

1/22/23

설교 제목: 사람을 두려워한 빌라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8 장 28 절 - 19 장 16 절

빌라도 앞에 서시다(마 27:1-2, 11-14; 막 15:1-5; 눅 23:1-5)

(요 18:28)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요 18:29)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요 18:30)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18:31)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절관주** 신 27:19

(요 18: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 18: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 1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요 18: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절관주** 요 6:15

(요 18: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절관주** 딤후 6:13

(요 18: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넘겨 주다(마 27:15-31; 막 15:6-20; 눅 23:13-25)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 18: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절관주** 마 27:15, 막 15:6, 눅 23:17

(요 18:40)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 19: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절관주** 사 50:6, 사 53:5

(요 19:2)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 (요 19:3)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 (요 19: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 (요 19:5)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 (요 19:6)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 (요 19:7)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절관주** 레 24:16
- (요 19: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절관주** 마 27:19
- (요 19: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 (요 19:10)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 (요 19: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절관주** 행 2:23, 롬 13:1, 요 18:28, 행 3:13
- (요 19: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절관주** 눅 23:2, 행 17:7
- (요 19: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절관주** 마 27:19
- (요 19:14)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 (요 19:15)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 (요 19:16)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절관주** 행 8:33, 마 27:26, 막 15:15

예수님은 한 밤중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혀 결박당한 채 전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 다니다가 새벽에 관정까지 끌려가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요 18:28)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심문을 한 것은 불법입니다. 유대인의 재판은 아침 제사를 지낸 후부터 저녁 제사를 지낼 때까지 그 사이에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심문을 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든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던 것입니다.

마태 복음과 마가 복음은 새벽에 온 공회가 모여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확정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 27: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마 27:2)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막 15: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관정으로 들여 보내고 자신들은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자가 되고 그러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큰 불법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면서 율법을 지킨답시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모순되고 이율 배반적인 행동입니까?

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연고로 총독인 빌라도는 관정 안에 있는 예수님과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 사이를 오가며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는 참으로 소신없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요 18:29)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요 18:30)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 18:31)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요 18: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를 고발하는 이유를 묻는 빌라도에게 그들은 예수를 '행악자'라고 합니다.
죄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일이 종교 갈등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될 수 있으면 이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재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면 총독부의 사형 언도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로마의 사형 집행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본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라도는 자기에게 보내온 예수를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는 분봉 왕 헤롯의 영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에게 끌려온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눅 23:8)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눅 23:9)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눅 23: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눅 23:11)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눅 23: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헤롯의 관할 지역인 갈릴리 사람을 죽인 연유로 당시 둘 사이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눅 13:1)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예수를 재판하라고 헤롯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신이 헤롯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어 헤롯의 마음을 풀어 주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의도대로 헤롯은 이 일로 인해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 왕이 되돌려 보낸 예수를 심문했으나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요 18: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 1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요 18: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 18: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 18: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조소하는 말투로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하시며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세상에 왔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나”고 던지긴 하지만 그에게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소신있게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요 18: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요 18:40)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 19: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요 19:2)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요 19:3)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죄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무죄를 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무리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무리의 의중을 묻습니다.

자신이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난 무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연고입니다.

빌라도는 공의롭지 못하게도 정치적인 해법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특사를 베푸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의도로 무리에게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무리는 예수 대신 바라바를 택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제대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뜻을 따라 자신의 입으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한 예수를 데려다 채찍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라도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누가 복음에 의하면 단지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눅 23: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눅 23: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눅 23:15)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눅 23:16)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우리가 예수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향한 동정심을 갖게 되어 풀어 주라고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도리어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요 19: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요 19:5)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요 19:6)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누가는 이 사건을 가리켜 '소리가 이겼다'고 기록했습니다.

(눅 23: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살인자 바라바는 특사로 석방되고 죄없는 예수님은 십자가 형을 받으십니다.

(요 19:7)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요 19: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요 19: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요 19:10)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 19: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요 19: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요 19: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요 19:14)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 19:15)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요 19:16)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의 소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받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여 진리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바로 자신의 앞에 있어 그것을 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재판관으로서 공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러 오셨다고 하시며, 진리에 속한 자는 당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만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진리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